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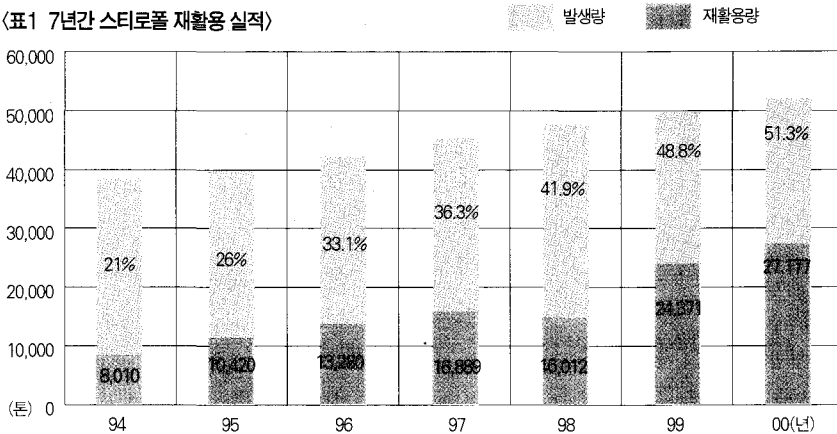
2000년 사업 성과

지난해 협회는 재활용률 50% 돌파, 재생 사진 액자 수출 1천394말 달러, PSP 분리 수거 재활용 사업의 확산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7년 간 협회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재활용 지원 사업과 홍보 활동이 국민들의 재활용 의식을 정착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2000년 협회가 이루어낸 성과를 살펴보고 2001년 사업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註>

스티로폴 재활용률 50% 돌파

93년 협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스티로폴 재활용률이 50%를 넘어서었다. 그동안 재활용률은 정부가 96년 스티로폴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99년에 48.8%를 기록했고 지난해 51.3%라는 재활용률을 기록한 것. <표1참조>

<표1 7년간 스티로폴 재활용 실적>



지난해 스티로폴 포장재의 발생량은 총 5만3천24톤으로 이 중 2만7천177톤이 재활용 됐으며, 폐립은 1만5천637톤(29.5%), 조각은 1만210톤(19.2%)이었다. 재활용된 페스티로폴의 용도별 현황은 재생수지 2만2천150톤(81.5%), 섬유코팅제 2천663톤(9.8%), 경량폴 2천364톤(8.7%) 등으로 나타났다. <표2참조>

<표2 용도별 재활용량 : 27,177톤>

구분	재생수지	경량폴	코팅제	계
재활용량(톤)	22,150	2,364	2,663	27,177
백분율	81.5%	8.7%	9.8%	100%
재생품 사용 용도	합성목재 옥실발판 사진액자 비디오 테이프 완구, 화분 조립식 벽돌 등	경량벽돌 경량인방 건물바닥재	종이코팅제 섬유코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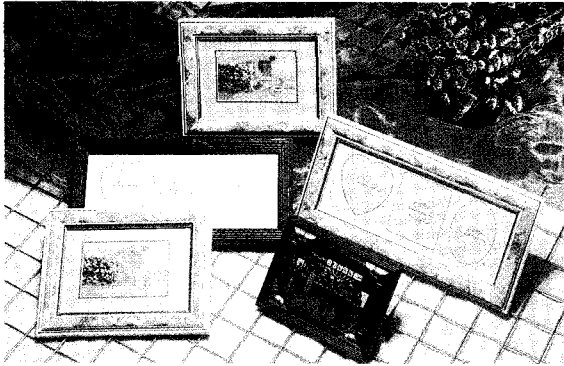


또한 페스티로폴의 대량 발생처로는 지난해에 이어 농수산 시장이 가장 많은 1만1천20톤의 스티로폴을 발생시켰으며, 백화점/유통 8천854톤, 가정/일반업소 8천1톤, 가전대리점 7천169톤, 일반기업 7천529톤, 전기전자업체 5천737톤, 기타 4천714톤 순으로 나타났다.<표3참조>

<표3 배출처별 발생량>

구분	농수산 시장	백화점/유통	가전대리점	가정/일반업소	일반기업	전기전자업체	기타	계
발생량 (톤)	11,020	8,854	7,169	8,001	7,529	5,737	4,714	53,024
재활용량 (톤)	4,846	4,582	4,725	4,575	3,902	3,320	1,227	27,177
재활용률 (%)	44.0%	51.8%	66.0%	57.2%	48.8%	57.9%	26.0%	51.3%

스티로폴 재생 액자 수출 1천만달러 돌파



지난해 처음으로 스티로폴 재생 사진 액자 수출이 1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99년 730만 달러보다 100%가 증가한 1,394만 달러를 기록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잉고트와 펠릿의 수출도 99년 180만 달러(4,500톤)에서 지난해 45%가 증가한 2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수출 신장세는 스티로폴 재생 액자가 원목이나 알루미늄 소재로 만든 액자보다 40%이상 저렴하고 기존 원목 소재와 똑같은 외관과 질감을 나타내는 등의 뛰어난 품질에 기인한것. 특히 미국과 일본에 치우쳤던 수출성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연합으로 확대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밖의 성과

식품용 포장 용기(PSP)의 분리 수거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99년 시범 사업으로 실시했던 서울시 양천구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서울시 서초구, 은평구, 경기도 용인시, 부산시 중구 등 총 5개 자치구로 늘어났다.

또한 연중 캠페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 업체 견학도 총 6회를 실시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스티로폴 재활용 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이외에 협회 홈페이지 "스티로폴은 내 친구"를 통해 재활용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했으며, 전국 지자체에 감용기 구입비 지원, 스티로폴 우수 지자체 선정 시상, 국제 행사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